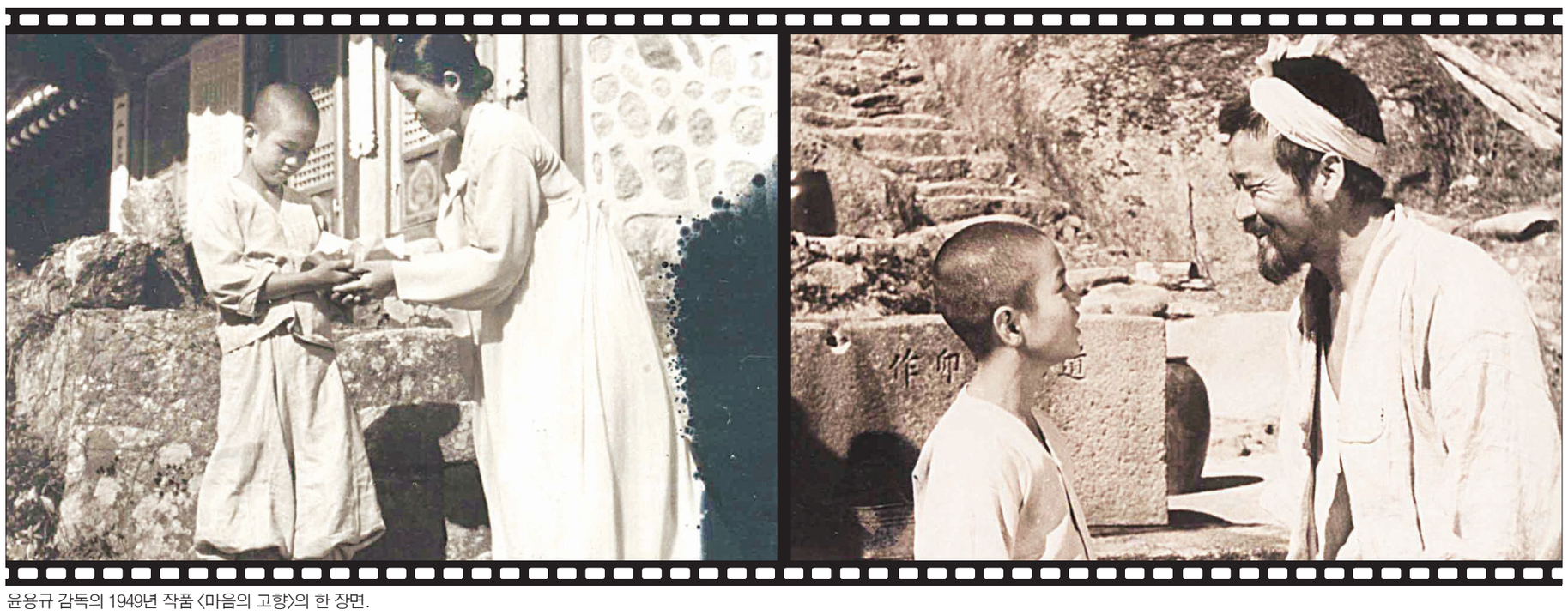
이안의 Media In Buddha ⑧ 영화 〈마음의 고향〉(1949)



▶한줄요약
1949년에 발표된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은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각색한 작품으로 한국 최초 불교영화로도 잘 알려졌다. 소재부터 촬영, 불교적 가르침을 담아낸 내용까지 모두가 완벽한 수작이다.

애절한 母情·佛心 그려낸 韓불교영화 효시



윤용규 감독의 1949년 작품 〈마음의 고향〉의 한 장면.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이 벌어지기까지, 1945년부터 1950년이라는 짧은 시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화가 많이 만들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나라도 새로 세워야하고, 식민지로 수탈당하고 전쟁에 동원되면서 텅 비어있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영화는 새로운 정치적 변화와 시책을 알리는 뉴스 영화나 일제강점기에는 영화에 드러날 수 없었던 항일운동을 소재로 하는 영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카메라나 필름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던 그 시대에 어렵사리 만들어졌을 몇 편의 문예영화가 이 시기 영화예술과 영화인들의 수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 가운데 한국 최초의 불교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다. 1949년에 발표된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은 함세덕의 희곡 〈동승(童僧)〉(1939)을 각색한 작품인데, 얼마나 작품성이 빼어났던지 개봉 1년 뒤인 1950년 4월, 프랑스와의 첫 번째 문화교류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프란시 날프 영화사의 〈꿈속의 노래〉(1949)와 교환 상영하게 되면서 〈마음의 고향〉은 프랑스로 날아가 상영되었고, 바로 두 달 뒤 덮친 6.25 전란의 포화를 피해 영화가 원본 그대로 남아있게 된 기적과도 같은 영화다.

전쟁에서 희생되는 것은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산하는 산하대로 전쟁의 포화에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불에 타서 사라져갔다. 깊은 산에 터 잡고 있던 수많은 산사들조차 전쟁의 참화를 피할 길 없던 이 시기에 〈마음의 고향〉이 프랑스에 남게 된 것은 어떤 가호를 받았기 때문일까?

스튜디오를 만들 수 없어 창호에 구멍이 뚫리고 처마에 거미줄이 쳐진 산사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된 〈마음의 고향〉의 제작 상황은 스크린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 일제가 버리고 간 낡은 카메라는 종종 렌즈 초점이 맞지 않고, 전기가 들어올 리 없는 깊은 산중에서 조명을 제대로 밝힐 수 없어 대부분의 빛을 자연광에 의지해야 했고,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망가진 절 건물은 보수도 되어 있지 않아 안쓰럽기조차 하다.

그런데도 76분짜리 흑백 영화에 깃든 영상미, 한 장면 한 장면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공들인 촬영, 촬영된 필름들을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풍경으로 이어 가는 편집 기법, 자연과 사찰과 민속과 사람 사이를 오가는 소리들이 빚어내는 사운드의 조화는 오늘날 첨단의 영상장비와 수백억 제작비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품격을 담고 있다.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고, 이상한 계기로 해외에서 보존되고, 마침내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영화가 겪은 것은 영화 속 주인공 동자승 도성의 여정이자 염원인 듯도 하다.

절간에 버려진 업둥이 도성은 절에서 지내는 동승이다. 마을 아이들은 엄마가 없다고 놀리고, 주지 스님과 절 생활의 엄격함은 아직 아이인 도성에게는 또래 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정이나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도성은 새벽마다 스님들의 예불을 준비해야 하고 예불 내내 지키고 있다가 종을 울려야 하고, 물도 길어오고 빗자루로 경내 청소도 해야 하고, 다른 아이들이 몰려다니며 새총으로 새를 잡고 놀 때에도 늘 절집 식구로서 자기 몫을 해내야 한다. 아무리 주지 스님의 보살핌과 가르침이 있더라도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아쉽고 외로운 상황에서 어린 도성이 어머니를 궁금해 하고 그리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 나날을 보내던 중, 아리땁고 자애로운 서울 아씨가 절을 찾아와 머물게 되면서 도성이 서울 아씨에게 마음을 붙이게 되는 것은 푸근하면서도 안타깝다. 아들을 잃고 공양을 드리러 절을 찾은 서울 아씨와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도성이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외딴 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인연,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었다. 자신을 어머니처럼 따르는 도성을 양자로 삼겠다고 간청하는 서울 아씨에게 모친의 업 때문에 도성은 남보다 더 많은 공덕을 쌓아야한다며 쉽게 허락을 내리지 않는 주지 스님의 매몰찬 답은 야속하기만 하다.

어머니가 누군지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도성의 처지가 안타까운 나머지 나무꾼 아저씨가 도성에게 염주 안에 부처님 대신 빨간 연꽃이 그려져 있는 염주를 가진 사람이 어머니라고 알려줬을 때, 서울 아씨가 자기 어머니가 되기를 갈망하던 도성은 아씨의 방에 들꽃을 꽂아놓은 다음 염주를 들여다보지만 연꽃 대신 그 옆에 놓인 깃털 부채가 눈에 들어온다. 〈반야심경〉을 외우는 순간에도 경전 위에 아씨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이제 도성에게는 아씨의 수양아들이 되어 서울로 따라가는 것이 어머니를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되었다.

함세덕 희곡 '동승'을 각색한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
'한국 최초 불교영화'로 유명

서울 아씨와 친어머니 사이서
고민하는 동자승 도성 그려내

하필 그때 도성을 찾아온 친어머니가 주지 스님을 만나 도성을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스님도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행실을 문제 삼아 친어머니를 내치는 주지 스님 앞에서 어머니라고 나서지도 못한 친어머니가 도성을 아들 삼겠다는 부유한 서울 아씨를 만나러 방에 찾아갔을 때, 마침 도성도 그 방에 들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가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도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은 애처롭고 딱하다.

염주 하나를 쥐어주고 친어머니가 떠난 다음, 마침내 도성과 서울 아씨의 간절함을 받아들인 주지 스님이 속세에 가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과 아침저녁으로 〈반야심경〉을 암송할 것을 다짐받고 서울 아씨에게 도성을 수양아들로 삼아 데리고 떠나도록 허락하는 것은 잘 된 일이기는 하나 바른 일은 아니어서 또한 안타깝다.

그동안 도성이 내내 그리워한 것은 어머니 역할을 할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 그 자체였고, 낳은 어머니와 앞으로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어머니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도성은 진짜 어머니를 앞에 두고도 새로 어머니가 생길수도 있다는 것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업을 새로 짓게 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다.

서울 아씨에게 부채를 만들어 주려고 새를 잡아 깃털을 탐한 것이 주지 스님에게 들키면서, 서울 아씨에게 양자로 가려던 일도 틀어지고, 자신에게 남겨진 염주를 들여다보고서야 그렇게 그리워하던 친어머니가 자신을 보러왔건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울 아씨도 친어머니도 다 떠난 절에 남게 된 도성에게 계율과 불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나무라는 주지 스님은 반듯하지만 무섭기만 하다.

두 어머니가 모두 떠난 절에 남은 도성에게는 이전처럼 새벽 예불을 준비하고, 종을 울리고, 마당을 쓸고, 심부름을 하는 수행의 일상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과정과 곡절을 겪은 도성은 이제 예전의 도성이 아니다. 마냥 한 자리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찾기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를 찾으러 모두가 잠든 시각 홀로 깊은 산문을 벗어나 속세로 향하는 길을 떠나는 도성의 모습은 진리란 깨우쳐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찾는 과정에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의지로 출발을 하는 것 자체가 큰 깨우침이 되는 놀라운 도약을 이뤄낸다.

도성이 떠난 산과 앞으로 갈 길을 멀리까지 비추는 익스트림 롱 샷, 그 가운데 한 점이 되어 걸어가는 도성의 모습은 '마음의 고향'이 무엇인지 오래도록 곱씹어보게 한다.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의 원작인 함세덕의 '동승'은 이후 주경중의 〈동승〉(2003)에 이어 박영철의 〈내 마음의 고향〉(2014)으로 리메이크 됐는데 이 가운데 〈마음의 고향〉이 가장 원작에 충실한 작품으로 평가되며, 예술적 완성도와 불교적 가르침을 전하는 고전으로 꼽힌다.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나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 이르기까지 한국영화에서 불교 영화로 잘 알려진 작품들에서 〈마음의 고향〉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은 이 작품이 최초의 불교영화라는 역사적 가치 뿐 아니라 가장 정통적인 불교영화이면서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예술성을 성취했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 아씨 역을 맡은 배우 최은희의 아름답고 앳된 신인 시절의 모습, 전쟁으로 파괴되기 전의 온전한 봉정사 경내를 볼 수 있는 것은 불자가 아니더라도 영화를 통해 오늘의 관객이 두루 누릴 수 있는 선물과도 같다. 또한 다행인 것은 오래도록 흔적을 찾을 수 없던 이 영화가 1993년에 프랑스에서 16mm 필름 프린트를 기증받고, 2005년 일본에서 35mm 원본 네거티브를 발견해 한국 관객들이 이 작품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마음의 고향〉을 디지털로 복원해 VOD와 DVD, 유튜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마음의 고향〉을 찾아 볼 수 있게 된 것은 영화에 담긴 큰 염원과 놀라운 가호의 힘이 아닐까 한다.

〈영화평론가〉

장엄하고 은은한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감돌고 휘돌아 불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할 깊고 심오한 염불소리! 가 지방 업자들의 단순 시공으로 이장 마이크시설 수준이 되어 염불 스트레스와 성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서울 토박이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의 최고 시설로 나머 염불인생이 편하기 그지 없어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특징 : 중국제 아닌 국산)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공희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정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종 합 향 : 130.000원
- 선 향 : 80.000원
- 불 향 : 10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 가루향(도향) : 90.000원



